

배운 것 실천하며 늘 화두와 함께 살면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세모에 되새기는 가르침

송구영신

다사다난했던 2006년 한 해가 저물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험난한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사자후를 토하며 삶의 지표를 일러 주었던 큰스님들의 가르침은 어두컴컴한 바다에서 등대를 만난 것처럼 불자들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06년 한 해 동안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코너를 통해 들었던 큰스님들의 법문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한 해를 마무리 하는

것도 새해를 맞는 큰 기운이 될 것입니다. 신년을 열었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법문에서부터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서울 운문사 주지 운문 스님, 순창 송광사 회주 법홍 스님 등 열네분의 법문을 가려뽑아 향훈의 울림이 큰 부분만을 모았습니다. 큰스님들의 수행력에서 우리나라는 주옥같은 감로법문을 끊임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진제 스님(대구 동화사 조실)

앞으나 서나 화두 물처럼 흘러야

참선은 일상생활에서 무르익어야 됩니다. 가나 오나, 앞으나 서나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화두가 흐르는 물처럼 항상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면 맑은 지혜 눈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자동으로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 동시에 사물도 정확하게 판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명랑하고 자신만만하고 근심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밝히는 일에 열중해서 마음속에 간절히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려고'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오매불망 정진하다보면 마음속의 갈등이 불바람에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면서 지혜가 밝혀져서 탕탕자재하게 되는 겁니다.

558호 (2006년 1월 1일)



수산 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

공부는 안거에 들어간 수좌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다같이 자기 자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옷(육신)을 벗어 버릴 줄 아는 공부입니다.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은 '언행일치(言行一致)'의 삶에서 가능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두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예전에 만암 큰스님이 제게 중 승(僧)자를 쓸 줄 아느냐고 물었어요. "사람 인(人)변에 일찍 중(僧)자입니다" 했더니 "먼저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람이 되지 않고 중이 되면 승기도 시끄럽습니다. 559호 (2006년 1월 4일)



운문 스님(서울 운문사 주지)

공의 이치 알아야 집착 깨뜨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공을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결과나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그 뜻을 더 쉽게 이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면 오히려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 과정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561호 (2006년 1월 18일)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

남 위해 살 때 만족 얻을 수 있어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후를 갖고 오생하지 않으려면 10억원이 있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지금 35살 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저축을 한다면 10억원을 모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10억을 모았다 집시다. 그런데 노후에 이것을 쓰면서 편안히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평생 그 큰돈을 모으기 위해 주위사람들에게 목숨 짓고 손가락질 받아가며 살았을 테니 누가 그 사람을 동정하고 걱정해 줍니까? 결국 한을 먹고 가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남을 위해 살 때 삶의 만족을 얻습니다. 본래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살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562호 (2006년 1월 25일)



법홍 스님(순창 송광사 회주)

맛 본 사람만 소금이 짠 줄 안다

불교의 공부는 마음공부입니다. 마음은 상(相)이 없습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정토가 되기도 하고 고택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청정심과 감사심, 용맹심이 그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을 쓸 줄 알아야 지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선은 왜 해야 할까요. 강력한 정신집중이 아니면 번뇌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은 학문이 아닙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달고 소금이 짜다는 것은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언전불급입니다. 564호 (2006년 2월 8일)



정관 스님(부산 영주암 회주)

참구하고 참구하면 '답' 나온다

지금 말하고 듣고 보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켜 의문을 참구하십시오. 의문이 불어선 의문을 가지고 참구하고 참구하다보면 어느 때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참도 절로 나오고 결정신자가 되는 겁니다. 답이 안 나오면 결정신자가 아니에요. 그저 민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모름에 대해서 일러고 추구하면서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두해 보십시오. 그 몰두에서 즐거움이 나옵니다. 서양의 문화는 말하고 듣는 이것에 대한 참구가 없으니가 자꾸 바깥으로만 마음 쏟을 데를 찾으니까 더욱 더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게 됩니다. 참구하고 참구하다 답이 나오면 안식자(安息者)가 되고 그 안식은 시방세계에 가득합니다. 570호 (2006년 3월 22일)



환안 스님(조계산 천자암 조실)

'누구' '무엇' 때문에 다 핑계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혜가 없어서" 하면서 수행을 미루고 돌려대고 변명을 합니다. 이걸 다 거짓말입니다. 변명도 사방삼세 부처님이 품쩍할 수 없는 큰 변명을 하면 성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과 고통만 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은 해 놓고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호롱고 그림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내가 한 생각 설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572호 (2006년 4월 5일)



천운 스님(해남 대흥사 조실)

부처님 가르침은 마을에 있어

36년 전, 광주에 향림사를 창건할 당시 주위에서 모두들 말렸습니다. 나무 하나 없이 민가와 함께 있는 절에 누가 오겠냐고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산속에 계시지 않았고, 길에서 나서서 길에서 가르침을 퍼셨고 길에서 가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바꾸었고, 뜻 모르는 경전을 읽기보다 찬불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제자에게, 제자가 그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진인(眞人)불교입니다. 문자에 갇혀 있지 않고 입으로 전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는 불교를 말합니다. 576호 (2006년 5월 3일)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경기도 : 02)456-8831 | 경상도 : 010-7638-1117
강원도 : 019-396-1110 | 전라도 : 010-2311-0157
충청도 : 010-8674-2357

현대칼라지붕공사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동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1자
재질 : 도자기(백자)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문체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천우경 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불상크기 : 7치
재질 : 도자기(백자)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